

위기 청소년 범죄 예방 근본 대책 “보호와 지원”

극으로 치달는 소년범죄

〈중〉중학생 관리 사각지대와 SPO 인력 태부족

사건 처리·예방교육·환경개선·가출 청소년 추적 등 역할 최근 인원 감축...1인당 13개교 담당 “양질 활동 어려워”

#A(15)양은 소위 ‘문제아’였다. 자살 기도를 하는 등 불안한 상태를 보이기 일수였고, 조건만남 등의 비행과 가정불화로 결국 가출을 감행했다. 외부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광주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 최현석 경위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A양에 대한 심도깊은 심리 연구를 선행했고, 청소년경찰학교를 거

점으로 학부모와 17차례에 걸쳐 ‘가족참여형’ 솔루션 회의를 가졌다. 7개월 동안 SPO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를 받은 A양은 가정으로 무사히 복귀했다. 또 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비행 예방을 이어나갔다. #기초수급 대상 8인 가정의 첫째 딸인 B(15)양은 방학 중 무인 가게에서 과자

와 아이스크림 3만원 가량을 무단으로 절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북부서 SPO 정은경 경위는 ‘단지 과자가 먹고싶었다’는 B양의 진술을 듣고 이는 단순 절도건이 아니라고 판단, 북구청 복지과와 연계해 사례관리 사업비 추가 등 실질적 환경 개선에 돌입했다. 아울러 광주재능기부센터와 협업을 통해 ‘사랑의 공부방’ 지원으로 B양의 가정에 가구, 생활품 등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연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인간극장에 출연한 6남매 중 한명인 C(16)군은 특이병인 뇌전증을 겪으면서 병원진료 등으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다. 이에 광산서 SPO 박성희 경위는 C군에게 재정과 의료, 상담 지원 등 맞춤형 케어를 실시했다.

경찰대학 위기청소년 후원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해 장학금 100만원과 광산구청 교육복지과의 협조로 의료검진 비용도 지원했다. 또한 우울증 상담과 1:1 멘토·멘티 및 비행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처럼 SPO는 학생의 비행 행위만을 바로잡기 위한 전담반은 아니다. SPO는 청소년이 범죄에 머무르지 않도록 환경개선과 예방활동을 통해 ‘보호와 지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사회규율 속에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도박,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조사하고 환경을 개

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학교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가출청소년들은 고스란히 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었다. SPO는 이들을 가정밖 청소년으로 분류해 주변 환경 조사를 통해 추적하는 업무를 진행하지만 포화상태여서 손길이 부족하다. 기존에 정해진 학폭 신고사건 처리, 안전점검, 면담, 예방활동, 화해조정, 순찰·계도활동, 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양질의 활동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광주 SPO 배치인력은 2019년 31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최근 3년간 5명이나 감축됐다. 광주 SPO는 1인당 13.1개교를 맡아, 1명이 수백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1인당 12.1개교 보다

관리 범주가 1개교씩 많은 수치다. SPO는 배정받은 학교 외에도 선도·교육과 더불어 위기관리 학생으로 지정한 학생들의 개별 면담·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SPO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는 일도 많이 하고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청소년을 추적해 관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업이 이뤄지는지 보이지 않을 뿐”이라면서 “청소년을 비행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적 투자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SPO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향후 5년간 관련 경찰 인력을 6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복기자

市교육청, ‘노트북 해킹 시험지 유출’ 대동고 대규모 감사

책임자 징계 ‘아직’ 일부 교사 ‘보안관리’ 위반 유출 학생 2명 ‘퇴학’ 결정

광주시교육청이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동고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나섰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책국과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등 관련 부서는 이달 초부터 대동고 감사에 착수했다.

부서들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험지와 답안지 등 내신과 관련한 학사 업무 관리 ▲교사들의 노트북 관리 ▲교내 경보 장치 관리 ▲교무실 잠금장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시험 출제 교사 가운데 일부가 관련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가 아닌,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 보안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또 대동고 교내 경보장치가 올해 1월 시작된 내부 공사 때부터 켜졌던 것으로 밝혀져 학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각종 책임에 대한 징계는 시교육청의 감사가 끝난 뒤 진행될 예정이다.

책임자 처분에 앞서 학교는 이날 오전 ‘시험지 유출’ 학생 2명에 대한 제2차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학교 측은 재심청구 기간 등을 고려해 처분 확정일이 8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



이철수 광주 대동고 교장이 17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김예리 기자

고 있다. 또 경찰과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또 다른 공모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 학생에게 시험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재시험은 치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험지를 유출한 두 학생의 2학년 1학기 전과목 성적만 ‘0점’ 처리됐다. 이같은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동고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이철수 대동고등학교장이 밝힌

재발방지책의 주요 골자는 교사동 내의 CCTV 추가 설치다. 또 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철수 대동고등학교장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린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이번 사건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 모든 교직원들도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만취 60대 물뎀 SUV 5중 추돌 음주운전을 하던 60대가 5중 추돌사고를 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량을 들이 받아 연속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옥근기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구속

법인 “개인 회사 위해 계열사 이용, 파급 효과 매우 커”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썬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연환뉴스

아동·청소년 신체 촬영해 소지한 20대 구속

아동·청소년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방송하는 과정에서 여성 아동·청소년 5명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A(2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 등을 유도해 해당 장면을 몰래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영상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12-16세 등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는 100여개가 넘는 관련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단인기자

제사나라 www.jesanara.com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안전원예제 고사
▶ 시 제 상
▶ 제 사 상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위폐